

2000년 동물약품 결산

“

무엇보다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축산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내 우유에 있어서의 품질강화와 등급에 있어서의 차별화 등을 통한 국내 유업계 관련 산업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낙농산업도 그 활로를 개척해 나간다면 어떠한 수입 외품에도 당당히 행진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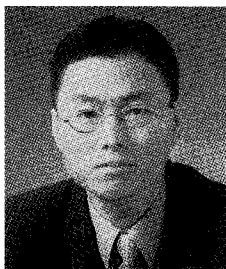
동물약품 산업의 2000년 결산과 규제역

21 세기를 시작한 2000년 벽두 새벽을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이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무리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

2000년은 실로 우리나라의 축산농가, 특히 소 사육농가에 있어 영원히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이다. 3월말 발생한 젖소 농가의 소 규제역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전역을 사상초유의 거대한 희오리바람으로 휘몰아 쳤으며 2001년 소고기 수입자유화는 한우 사육농가들로 하여금 사육의지를 약화시켜 많은 암소를 시장에 내다 팔게 하였다.

전국의 한우 사육농가들이 빈 축사를 바라보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암담해 하고 있다. 70년대만 해도 한우 한 마리만 있으면 자식 대학 뒷바라지까지 하던 게 생생한데 실로 세월의 흐름 앞에 망연자실한 채 정부만 바라보지만 뒷북치기 바쁜 행정은 어느 것 하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있었던 중국 정부와의 수입마늘 제한 협상과 납꽃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림부 및 외교통상부가 취하는 행동을 보면 1차 산업에 대해 그들이 어떠한 인식을 취하고 있는지는 명약관화하게



최형규
우성양행 마케팅 부장

드러난다.

하지만, 이 길
이 천적이라 여기
고 오늘도 말없이
묵묵히 소 여물을
준비하는 낙농육
우인 여러분, 우
리의 갈 길이 험
난하고 어렵다 해
도 오늘 이 자리
에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의 먹거리에서 우유는 갓난 아이
들의 주식에 관련된 필수 불가결
한 것이며 한우 또한 우리의 유
구한 역사와 더불어 우리 선조들
과 동반자적인 삶을 영위해 온
유일무이한 한국 전통의 고유한
축종이다. 우리의 먹거리를 우리
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새해에 소고기 수입 자유화가
된다 해도 국내 검역능력의 한계
로 인해 최대한 들어와야 검역능
력이 생우 8천5백두 정도인데 이
는 지난해 쇠고기 총수요량의 약
0.5%인 정육기준 약1천7백톤
밖에 되지 않는다고 농림부 장관
이 설명했다.

또한, 내년 생우 수입 문제와
관련, 한우둔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전에 귀표로 생우 원산
지 표시 및 도축전에 6개월 사육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EU와
같이 출생국·사육국·도축국·
가공국이 다른 경우 이를 표시하

는 등의 수입생우 유통경로를 철
저히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므로 그
리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막연한 두
려움으로 말미암아 축산업을 포
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내 우유에 있어서의 품질강
화와 등급에 있어서의 차별화 등
을 통한 국내 유업계 관련 산업
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낙농산업
도 그 활로를 개척해 나간다면
어떠한 수입 외풍에도 당당히 행
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올해 구제역 파동과 관련
하여 낙농육우인 여러분의 방역
개념 변화와 동물약품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
게 결산해 보기로 하겠다.

1. 구제역 발생과 낙농육 우농가의 소독약 선택

4월 정부의 공식적인 구제역

발병 발표 직후
전국의 양돈, 축
우 농가들 얼굴에
는 근심의 먹구름
이 뒤덮었다. '이
렇게 무서운 전염
병이라니 이제 어
떡하나'를 되뇌이
며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모두들
삼삼오오 모여 근
심어린 한숨들만
을 내뿜었다. 다
행히도 정부의 신속한 도로간 축
산물 이동통제와 지역간 방역활
동을 실시한 덕분에 구제역은 전
국적인 확산이 없이 일부 지역
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하지만, 4월에서 6월까지 각고
의 노력을 기울이며 목장입구,
우사입구, 운동장 등에 소독을
실시하며 많은 정성을 쏟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구제역을 계기
로 많은 낙농육우인 여러분들은
그동안 얼마나 방역소독에 대해
무지했나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
었다.

가장 발빠르게 행동하신 분들
은 이웃 양돈농가에게 달려가 어
떤 소독약이 좋은지 조언을 구하
셨고 다음은 인근 가축위생시험
소 및 사료·동물약품 영업소장
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소독을 실
시하였다. 그런데도 결국 많은
목장에서는 소독제들의 위험성
과 적용효과를 확실히 알지 못하

고 사용하여서 많은 사회적 물의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인근 화공약품상에서 가성소다를 구입하여 일반 소독제처럼 물에 희석하여 소에 직접 뿌린 사건이다. 화공약품상에서 판매하는 약품들에는 가축을 대상으로 농림부에서 허가한 것이 없으므로 약제의 적절한 사용법과 가축에의 주의사항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다.

소의 등가죽이 벗겨지고 유방 피부에 피부가 벗겨지고 발굽에 궤양이 생기자 그 사람은 자기 농장에 구제역이 발병하였다고 신고하는 바람에 이웃 양축가들과 그 일대 가축위생시험소에 비상이 걸렸었다.

또 다른 경우는 생석회가 좋다고 가루를 출입구에 마구 뿌려놓아 먼지가 날려 눈에 들어가면서 실명의 위험까지 겪었던 사례이다. 생석회는 물을 만날 때 열을 발생시켜 균을 죽이는 소독약이므로 그냥 가루로 있을 때는 아무런 소독효과를 내지 못하다가 그 가루가 눈에 들어가면서 눈에 심한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올해는 처음이어서 이러한 실수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방역소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소뿐만 아니라 축주들의 안전도 정확히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표 1〉 2000년 9월말 누계기준 국내 동물약품의 국산품 및 수입품 판매비율 (단위: 억원)

분류	1999년 9월말	2000년 9월말	증감율
국산품	2,173	2,245	+3%
수입품	671	745	+11%
합계	2,844	2,990	+14%

〈표 2〉 2000년 3/4분기 중 각 항목분류별 동물약품 증감추이 (단위: 억원)

대분류	중분류	증감율	1999년 누계	2000년 누계	증가액
의약부외품	소독제	157%	75.5	193.7	118.2
	방충살충제	219%	53.1	169.3	116.2
		11%	18.1	20.1	2
생물학제제	백신	26%	306.9	387.5	80.6
		26%	300.9	379	78.1
합성항균제		-3.5%	154.5	149.1	-5.4
항생제	페니실린계 마크로라이드계 폴리펩타이드계 디터펜계	-7%	306.2	284.8	-21.4
		22.8%	45	55.3	10.3
		-59.8%	55.3	22.2	-33.1
		-30.8%	2.6	1.8	-0.8
보조약품	항곰팡이 유기산, ...	52.7%	3.3	5	1.7
		-62%	27.1	10.3	-16.8
항원종약	항곡시듬 구충제 진드기 구제		14.4	14.4	0
		-7%	7.9	7.4	-0.5
		5%	59.2	62	2.8
비노생식기(생식기 호르몬류)제	진드기 구제	116%	3.8	8.3	4.5
		27%	29.6	37.6	8
		15%	254.7	291.7	37
대사성 제제	비타민 EC 글루타치온 아연-메치오닌	25%	8.7	11	2.3
		42%	4.5	6.4	1.9
		49%	2.7	4.1	1.4
소화기계 작용약	효모 생균 소화제 효소제	-8.9%	70.5	64.2	-6.3
		2.7%	10.6	10.9	0.3
		-25%	25.7	19.3	-6.4
		-30%	13	9.2	-3.8
		-61%	9.8	3.8	-6

2. 동물약품 산업의 변화

동물약품의 전년도 3/4분기 동물약품 판매누계 전체시장은 약 2,844억원이었으나 2000년 3/4분기 실적은 2,990억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5.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4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독약제 및 백신의 판매에 의한 급격한 매출로 말미암은 것과 질병 치료에 따른 대사촉진제 및 영양제의 매출증가가 주된 부류를 이룬다. 그 이외의 제품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4분기(7~9월)의 매출금액으로만 비교해 보면 전년도 1,015억원이던 것이 올해에는 994억원으로 약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4분기까지의 동물약품 매출 실적을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대별하여 보면 국산품 2,245억원에 수입품 745억원으로 약 3:1의 비율을 보인다. <표 1 참조>


이들 중 각 약제별로 세분하여 들여다 보면 <표 2>와 같이 소독약제와 구제역 백신에 힘입은 백신 판매비중이 배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계열들에서 전년 대비 감소를 나타냈으나 소독제 및 구제역 백신만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석양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처음으로 경험한 구제역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인근의 대만에서 구제역이 재발하고 유럽에는 광우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더욱 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추운 겨울철 활동하지 못하지만 기온이

상승하는 봄부터 여름에 걸쳐 기승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도의 소고기 수입개방을 우려해 많은 비육우 농가들이 위축되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더욱 정신을 차리고 모든 낙농육우인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어려운 파고를 헤쳐나가는 단결된 힘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필자연락처 : 02-409-6705)

천연 미네랄 공급 소식

❖ 우리와 같은 집약 축산을 하는 여건에서는 각종 질병예방, 대사장애 해소, 산유량 증가와 유질 향상, 번식장애 해소 등을 위하여 천연미네랄의 급여는 필수적입니다.

❖ 아그리-민(AGRI-MIN)

마그네슘, 칼슘 등의 다량미네랄과 미량미네랄을 골고루 갖춘 제품으로 제1위내 pH조절제로 발효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며, 반전을 조절제로 미생물의 성장효율을 증가시켜 산유량 증가. 번식장애 해소와 각종 질병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필수 영양물질이다.

❖ 벤토나이트(BENTONITE)

미량미네랄과 최고의 완충제로 제1위내 pH를 조절하여 각종 효소의 증식과 활성화로 완전한 사료의 소화흡수와 산독증 예방과 강한 항병력을 갖게 한다. 높은 흡수율과 양이온 교환능력은 농약 등 유해물질과 독소를 제거하는 놀라운 능력과 고능력우와 집약축산의 경쟁력을 갖게하는 필수 영양물질이다.

● 수입원 **한국 미네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75-9 해진빌딩
TEL : (031)964-6367, H.P : 011-446-8252